

‘기독교학문 관점에서 바라본 유·아동기의 홈스쿨링’에 관한 논찬

박영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그분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엡6:4)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의 특권이자 신성한 의무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신4:10,6:7; 사 38:19).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육의 현실은 기독교, 비기독교 가정을 막론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학교 교육은 물론 너나할 것 없이 사교육 현장으로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기독교 부모 및 교육자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저자들은 홈스쿨링을 '지리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사 역할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개인 마다, 혹은 각 가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정의하고 기독교 학문 관점에서 홈스쿨링을 통한 유·아동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신앙적 자녀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학계 및 부모들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들 이면의 비기독교적인 교육관을 지적함으로써 별다른 비판적 자성(自省)없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기성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한 인간의 교육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동기의 자녀들을 별다른 경계 의식 없이 이월론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홈스쿨링을 통하여 자녀들의 영적 훈련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들의 홈스쿨링에 대한 관점은 교육의 본질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지혜 탐구와 신앙, 덕성, 성품의 발달에 있다(벨후 1:5-8)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인 부모 뿐 아니라 교육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공감과 감사가 큰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홈스쿨링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논리적으로 뒷받침되기 보다는 다소 일반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 대안교육계에서는 홈스쿨링이 더 이상 새롭거나 낯선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어떻게 홈스쿨링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찬자의 아쉬움을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담아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다.

- 1) 연구자들은 유·아동기에 홈스쿨링을 통해 자녀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더불어 성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기존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통한 실천 사례들이 존재하는가?
- 2) 홈스쿨링은 부모의 희생과 헌신 및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현재 한국 교육 상황에서 가장 용이하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이었는가?

논찬자는 다시 한번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연구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육가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재활과 관계된 성경 속의 담론

조영길 (고신대학교 재활학과)

I. 서론

재활은 194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재활전국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회복은 신체적 장애를 입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장애를 입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의미이다.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장애예방과 재활을 '제3의 의학'으로 정의하면서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조치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교육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재활은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기능들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자격·존엄성을 회복하는 기술이다.

재활(Rehabilitation)은 라틴어 'habilitas' 또는 'habilitare'에서 기원된 용어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과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뜻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지니고 있다.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차별이 심각한 편이다 (정부차, 2003). 이러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 하나의 정당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복지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은 성경적 이해의 부재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세우 나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장애를 가진 다양한 인물들에 대하여 부활과 치유, 복음전파와 연결 짓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소수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같은 집단공동체를 재활의 목표 아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장애가 소수집단 구성원으로 특정 지워지기 보다는 장애인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본 연구는 신구약 속의 장애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로 성경에 나타난 재활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는데 있다.

II. 성경과 재활

1. 성경 속의 장애

구약성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죄의 대가, 구별의 대상, 무능력자로 장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 내용으로는 보호의 대상, 소망의 대상,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장애 상을 표현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다양한 장애가 나타난다. 시각장애 이삭, 불임장애 사라와 라헬,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경험하고 부부가 장애인인 야곱과 레아, 민족·언어·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언어장애 모세, 나병을 경험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 중도 실명자 삼손, 반사회성장애 압살롬, 충성심을 맹세한 지체장애 므비보셋, 시각장애 선지자 아히야, 심각한 강박성정신장애 사울, 시각장애 엘리, 지체중복장애 바실레, 우울장애 엘리야, 원형탈모장애 엘리사, 나병의 나아만과 게야시, 웃시아, 뇌병변장애 여로보암, 지체장애 에훗, 신체 절단장애 아도니 베세, 중복장애 시드기야, 수전증과 언어장애를 경험한 에스겔 등 성경 속에 장애 인물이 기록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언어장애 사가라, 시각장애 바디메오, 경계성정신장애 막달라 마리아, 불안장애 마르다, 예소중 성격장애, 성격장애 세례요한, 일시적 시각장애 바울, 혼혈인 디모데, 뇌병변장애 에니아, 일시적 시각장애를 경험한 요셉 등 장애인물이 소개된다.

신약성경에서는 문둥병자, 귀신들린 자, 소경, 병어리, 절뚝발이, 중풍병자, 앓은뱅이, 귀머거리, 간질, 손마른 자 등을 치료하는 기록이 있다 (김문수, 2009).

성경은 병자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치유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한다. 중풍병자와 친구 네 사람의 믿음 (마태복음 9:2-8, 마가복음 2:3-12, 누가복음 5:18-26). 청각장애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마가복음 7:31-37), 벧새다에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마가복음 8:22-26),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마태복음 15:2-28, 마가복음 9:14-29, 누가복음 9:38-42),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2-28, 마가복음 7:25-30),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5-13, 누가복음 7:1-11), 신하의 믿음 (요한복음 4:46-54), 회당장의 믿음 (마태복음 9:18-19, 23-26, 마가복음 5:22-24, 35-43, 누가복음 8:41-42, 49-56)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의한 치유의 사건들 (누구복음 7:11-15, 13:10-17, 요한복음 9:1-7, 11:17-44)이 나타난다.

예수는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라고 (누가복음 4:16-19)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요한복음 9:1-13)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에 관한 기사에서는 제자들이 장애가 누구의 죄에 대한 대가인지 질문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애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장애인들도 각 사람에게 주어질 삶의 독특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바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고린도전서 1:27-28),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은 곧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나 (고린도후서 12:7-10).

성경에서는 장애를 자신의 대상으로 본 내용 (누가복음 14:12-21)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천국 잔치에 초청된 손님으로 비유하고, 장애인을 천국잔치의 합당한 손님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권력자나 부자, 귀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해타산과 무관하게 베푸는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장애에 대한 관점은 죄의 대가, 부정적 이미지, 동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재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장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성경 내용은 종말에 장애인들이 듣고 보게 되며 (사 29:18), 구원 받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며 (예레미야 31:8), 그날에 구원을 받으며 (미가서 4:6-7),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누가복음 14:21) 등 긍정적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다.

2. 장애와 재활

장애에 대해 재활은 의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과 같은 영역으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실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 패러다임은 늘 변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관점의 재활은 장애문제를 개인적 관점에 두고 있어 의료적 문제를 가장 우선한다. 현대적 관점의 재활은 사회통합에 그 가치를 두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은 장애인의 특수한 제한점이나 능력 등에 관해 개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에서 상호 연관된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욕구에 따라 전문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장애 패러다임은 총체적 재활로 변화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를 감소시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가치, 규범, 기준, 관습에 의해 문화적으로 규범화되고, 보편적으로 장애에 대해 역동적 정신기제는 죄의식, 책임감, 동정, 반감을 불러오게 한

다. 뿐만 아니라 장애는 신체와 생애에 대한 불안 요소로 극도의 두려움, 불안, 위협, 거세, 공포, 죽음을 연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강화 요인이 증가한다. 물리적·건축 구조물의 접근성 제한이나 미디어의 부정적 장애인관, 참여의 기회 제한, 제도의 차별 강화, 사회 조직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이 강화된다. 따라서 재활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의 습득과 정립,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Wolfensberger, 1960).

재활은 사회과학의 지식과 기술체계를 이용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심리적·사회적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현대적 의미의 총체적 재활은 장애인의 전생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이해를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재활과정에 있어 욕구, 정서, 관심, 가치관, 태도 등 일련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활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행동 이념에 입각하여 차별과 불평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장애인이 속한 사회에서 주류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III. 재활과 관계된 성경 고찰

1. 의료재활

성경에서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복음증거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경우도 있다.

이삭과 야곱은 노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손을 축복하던 선택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로보암 선지자 아히야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며 (열왕기상 14:4), 육체의 가시로 장애를 지녔던 사도 바울은 그 장애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장애를 가진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약한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감당하고 복음을 널리 증거 하였다 (고린도후서 12:9).

이런 기사는 장애인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3:1-10).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지체장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 동정보다 근본적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며, 인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행하신 행동의 본보기가 된 다.

사도들이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한 수많은 사건은 예수가 인생의 구주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예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과 육체적 재활을 확연케 한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천국사역으로 보았다.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중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예수의 치유사역에서 자주 등장한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를 찾아온 기록 (마태복음 8:5-13)에서 주인이 하인의 생명 존중 모습에서 믿음을 확인케 한다.

한 아버지가 간질병 든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치유 받은 사건 (마태복음 17:14-18, 마가복음 9:17-29, 누가복음 9:37-43), 친구나 이웃사람들이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의 치유사건 (마태복음 4:24), 병어리 된 자가 치유된 사건 (마태복음 9:32-34), 눈멀고 병어리 된 자가 치유된 사건 (마태복음12:22), 절뚝발이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치유된 사건 (마태복음15:30),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치유된 사건 (마가복음 7:32-35), 벧새다 소경이 치유된 사건 (마가복음 8:22-26)에서 예수의 생명 존중 사상은 매우 잘 묘사되고 있다. 예수가 유태인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으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치료과정 (마태복음 12:9-13, 마가복음3:1-5, 누가복음 6:6-10), 회당에서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파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 (누가복음 13:10-13), 베레사다 언덕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5:2-10), 태어날 때부터 소

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9:1-14> 등에서 예수는 시대적 관습 보다는 인간 생명존중 사상을 여실 이 나타내고 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장애를 치유하는 기사 <사도행전 14:8-10> 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그 사람을 가리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걸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의미의 반복이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다. 의사인 누가는 장애는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선천성장애임을 강조한다. 하반신마비장애의 삶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삶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는 바울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바울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착했던 것이다.

예수의 오심은 표면적으로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처럼 병자와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열중했다. 예수의 관심과 집중은 구약성경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이 흠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몸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예수도 인간의 몸을 치료하시면서 관계회복 즉 재활을 통해 삶을 완전히 하심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사회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예수 시대의 민중, 특히 갈릴리 민중은 혹심한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민중의 삶은 극도로 사치스러웠던 특권층의 삶과 대조적이었다. 민중은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와 헤롯 왕가의 압제를 받았고, 사제귀족들로부터 종교적 억압을 당했다. 일반 민중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었을 뿐 아니라 외래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문화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민족들은 귀족과 바리새와 같은 종교적 지배층으로부터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은 질병 박물권이라 일컬을 정도로 온갖 질병이 만연했다. 복음서에서 병자와 장애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나오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장애와 병자를 특별히 분리하고 있지 않는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5:3-4> . 그 시대에 병자나 장애인들은 사회의 찌꺼기로,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특별 격리되었다. 특히 유대를 포함한 고대세계에서 장애와 질병은 조상이나 당사자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의 결과로 인식되어 컸기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눈먼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환자 등은 대체로 거지와 함께 장애의 부류로 인식되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의미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함을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4:18> . 예수는 마치 병자와 장애인을 치유하고 돌보아 온 분처럼 병자들과 장애인에게 집중한다. 장애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일차적 사명이 되었다. 육에 갇힌 요한이 예수에게 당신이 메시아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로 자문할때, 예수는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슴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확실한 미션을 제시한다.

장애인들은 시대적으로 이중의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억압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가 죄의 결과로 인식되는 유대사회에서 장애는 낙인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억압을 당해 왔다. 그래서 예수는 병자를 고쳐 주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육체적인 치유와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동시에 선언하는 것이다. 예수는 장애인을 그 질병과 장애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사회의 그릇된 정죄로 부터도 자유롭게 하였다.

예수는 일반적으로 치유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서 장애인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고 장애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치유를 했다 <마가복음 10:46-52> . 예수의 치병사건은 장애인이 주체성을 찾고 스스로 일어서는 재활을 주시하는 내용이었다. 치병 사건에서 저주 나오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치유와 구원에서 장애인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함으로써 치유 사건을 병자와 하나님의 관계로 인식되도록 돌린다.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할 때 예수는 일반적으로 치료 행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관심과 생각을 먼저 확인한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을 던진다. 치병사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되는 기적이었다. 장애인을 주제로

세우는 일이었다. 장애인의 주체가 확립되고 더불어 사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도 완성된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유형으로는 제도적 장애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성경의 장애유형은 신체적·심리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은유적 표현으로 열거하고 있다. 아픔은 편집성 성격장애, 트비보셋은 분열형 성격장애, 사마리아 여인은 경계선 성격장애, 맞새마는 연극성 성격장애, 압살롬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롯은 의존성 성격장애, 사울은 강박성 성격장애로 분류하기도 하며, 때로는 신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동시에 설명한다. 야곱과 사마리아 여인, 롯의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치유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장애유형을 구분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질환적인 부분을 보다 폭넓게 소개되고 있다. 현재적 의미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나병, 왜소증, 안면변형장애, 척추장애, 피부병, 장루장애 등과 정신적인 장애 현상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의 때가 되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슴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 한다. 이 메시지는 영적으로 이해되지만 그 앞 뒤 흐름을 보면 그 약속은 우선 육체적인 장애가 사라짐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는 일하시는 가운데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걷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한다 <마태복음 11:5> .

기록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키가 작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물리적 장애 현상으로 작용하였다. 그 때문에 그가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특별한 관심을 끌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 새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누가복음 19: 2-10> .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집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서 그 환자가 치유되는 기사는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슬한 병자들이 각자 제 먼저 물속에 들어가 낚고자 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묘사된다 <마가복음 2:3-12, 요한복음 5:5> .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리로 달려갈 때 남들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홀로 버려진 38년 동안이나 앓던 사람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다. 이는 인간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돌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도록 깨우쳐 주고 있다.

2. 심리재활

질병과 고통은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인류가 문화적으로 보편화하였다. 장애는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나, 구약성경은 그런 암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부정적 결과로 장애를 암시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 재산, 건강을 다 잃고 큰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가 한 결 같이 욥이 겪는 고난을 보니 욥이 지은 죄가 크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발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기 4:8-9> . 욥의 고통은 죄에 대한 결과로 친구들은 반론하고 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장애를 경험한 성경적 인물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 두 눈이 뿔힌 사건 <열왕기하 25: 7>,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므로 두 눈이 뿔힌 사건 <사사기 16:21>,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모독했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사건에 등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값으로, 본인 뿐 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출애굽기 20:5> . 랍비들은 부모의 죄가 아기에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로 해석한다. 당시 유대교 뿐 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구약성경은 종종 장애를 죄에 결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약성경은 장애를 '구속의 은총'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하는 사명자로 해석된다 <마가복음 2: 1-12> . 유대사상으로 장애역시 죄의 결과로 신적 징계의 하나로 믿는 인과 관계적 사회적 통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과 논쟁의 거리가 되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대하여 '장애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과 치유'에서 강조되었다. 죄용서 받은 사건과 치유를 받은 사건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서 공히 예수는 메시아적 권위를 강조한다. 또한 <요한복음 5: 1-18> 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역시 죄와 장애의 상관관계로 일부 사용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과 장애는 죄 때문에 생긴다는 암시

를 주고 있다. 두 맹인에 대한 기사는 믿음과 치유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마태복음 9:28-29>, <혈루증 여인도 역시 믿음과 치유에 대한 기사로 해석된다 <마가복음 5:34> .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다. 예수께서는 나면서 눈먼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장애인 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 것으로 장애인상과 장애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요한복음 9:3-24> .

바울은 장애를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해 주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 7> . 바울은 장애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해방하고 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가져 없이 처벌하는 율법적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매인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들은 장애인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했다. 장애를 부모의 죄나 장애인 자신의 죄로 돌리는 한 장애는 자신의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장애는 수치스럽고 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장애를 수치스러운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멸시하고 배척하게 된다. 신약성경의 기사는 장애와 죄에 대한 해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장애선교의 근간으로 <마가복음 2:1-12, 누가복음 5:17-26, 요한복음 5:1-18, 요한복음 9:1-9> 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당사자의 죄도 아님을 분별하셨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으로 정의하였다.

강영우는 장애에 대한 심리사회적 해석으로 동양은 수치문화(Shame culture)로 서양은 죄의 문화(Guilt culture)로 인식하였다. 그는 실제 치열한 시각장애의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장애가 죄의 결과인지 갈등 속에서 신앙적 갈등을 해소 했다(2012).

요한복음의 사건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와 질병은 죄의 결과로 해석되었던 다양한 기사를 반전하는 사건이다.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죄에서 자유를 선포한 해방 선언문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죄의식에 관한 의문점을 일시에 자유하게 됨을 선언한다. 이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주는 면제부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심리는 장애아동의 장애가 부모의 죄의식으로 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예수의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심리적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리놓는 심리적 안식의 선물로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본질로 예수는 장애의 경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불러 세워 당당한 주체적 신앙인으로 인정한다. 소경은 오늘날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오자이며 예수 당시에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율의 이야기는 고통과 죄의 인과율적인 관련성을 부정하는 극적인 예를 보여주지만, 예수당시의 유대교에서는 그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복음 13:2> . 어른이 병에 걸릴 경우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뭔가 잘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장애와 죄에 대하여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암시적으로 죄가 영적장애를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한다. 장애와 죄에 대한 해석은 직접적인 사례가 아니라 암시적인 사례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예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죄의식과 심리적 압박에서 문화와 시대를 뛰어 넘어 사회적 비난과 조소에 대해 억압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예수는 병자와 치병사건에 있어 사람들로 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해왔던 사람들 특히, 장애인과 함께 늘 하셨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들을 과거의 숙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셨다. 이는 심리적 재활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3. 사회재활

장애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차별에 대한 공포이다. 우리사회는 약자에 대하여 다양한 차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차별을 갖고 있다. 인지적 차별은 인식으로, 감정적 차별은 편견으로,

행위에 대한 차별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는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소수를 배려하는 것보다 다수를 위해 교회건축물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유모차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회 건축이나 편의시설을 설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 배려는 인간의 기본적 도로로, 적극적 배려는 사랑의 실천으로 강조한다. 사회통합은 지역사회 내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동안 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소홀한 부분은 신도와 지도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제 내용이 있다. 이것은 신제조건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면이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다 <레위기 21:17> . 제사장 자격에 대한 이 근거는 기독교에서 금세기 이전까지 장애인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상적 기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차별의 식은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과 차별이 철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지체는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런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기능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2: 1> .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정한자, 혹은 장애인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중심을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고 기록하였다 <사무엘상 16:7> .

교회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성례전, 세례, 통합예배실, 교회 편의시설의 접근성, 교육, 사회생활, 권리옹호, 장애에 대한 연구까지도 교회가 장애인들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며, 그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장애를 일시적 동정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을 위해 인식과 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여준 예배의 태도는 베타적 벽을 허물고 이웃의 친구들이 지붕을 허물고 그들을 도와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실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쓸 때 완전한 사회적 재활은 성립된다. 적극적인 실천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 할 수 있다. 성경은 각 지체의 하나 됨을 보혜사 성령의 역할로 구체화 하고 있다.

4. 차별금지

예수 앞에 설 때에 장애인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완전히 긍정되었으며, 따라서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서 그의 독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다.

장애인과 병자에 대한 예수의 행동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와, 모든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였다. 인류 역사 이후 장애인들은 언제나 인간 공동체 내에서 소외와 위협을 받아 왔고 차별을 받아 왔다. 교회에 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화장실, 주차장, 모든 시설들이 건장한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되어 있다. 교회 내로 들어가도 장애인을 위한 의자 하나 배려해 놓고 있지 않으며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인 접시 성경이나 찬송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남동우, 1994).

교회는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어떤 장애인든 부담 없이 교회에 찾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가 쉽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물리적 구조 변경의 문제이다(이 계운, 1996). 건축설계 시부터 장애인과 약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구조물에 의하여 장애인들은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다시금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예배를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또 다시 걸림돌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현 구조물의 변경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시간 혹은 변경의 불가능성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있든 없든 점자 주보나 안내서를 만들어야 하고, 청각 장애인이 있든 없든 설교의 수화 통역이 있어야 하며, 지적 장애인이나 기타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교회의 장애사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회적인 방문이거나 형식적 단편적 행사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대상을 동정적으로 여기는 프로그램이 차지한다. 교회는 장애에 대해 봉사란 미명으로 행위를 안위하고 있다. 복음과 영혼구원 보다 물질만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교제 차원의 만남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배당 안에서 혹은 교회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회 교인으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려 하기보다는 예배당 바깥에서 또는 교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그리하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형태의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선 교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교회는 장애인에 무엇을 원하는지, 장애인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면서 교인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면,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 한다(김영신, 2006).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사역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성경적 근거 위에서 장애인을 이해해야 하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이 선교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된다. 교회의 장애차별은 일반 사회보다 분리와 배제가 더욱 크다 하겠다. 이는 교회가 앞으로 개혁하고 변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경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남자는 여자는 몸이든 정신이든 그들이 입은 상해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2:6>, ‘약함과 장애를 ‘하나님이 임재 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기는 시각을 (고린도후서 12:9) 찾아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장애 와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소외의 일들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성경해석이나 복음해석이나 교회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인의 심층의식을 지배해 왔다(성기환, 1990: 67; 김문수, 2009: 51 에서 재인용). 상당수의 장애인은 자신의 입술, 이성과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물리적 구조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사실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예수는 약자를 차별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시 되었던 여성, 아동, 장애인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격려해 주셨다.

초대교회도 초기에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상실하면서 일반 사회와 더불어 여성, 아동, 장애인들을 소외시켜왔다. 차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의 행동이나 문제는 사단과 연결되어 장애인을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 교회 내에 자리 잡았다.

성경에서는 모든 장애를 사단과 연결 짓지는 않았으나 극단화된 신학은 장애인을 박해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에 그 대상 이었다. 아직도 일부 지도자들 가운데는 ‘장애인을 대할 때 귀신들린 것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수없는 설교 속에서 믿기만 하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이리가 말하며, 앓은뱅이가 걷는다’는 신앙심을 부추기기 위한 믿음의 수단으로 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교인들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봉사도 동정과 자신의 대상으로서의 인식 되고 있다(박재홍, 1998: 50, 김문수, 2009: 52 에서 재인용).

성경 속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예수는 소외 받는 자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그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외모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보았고, 그들의 인격적 권리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영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셨으며, 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와 재활에 관한 성경 연구로 장애인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전인적 재활에 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예수는 공생애 기간 중 가장 많은 일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이었다. 질병치료 뿐 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자유 함을 찾아주고 있다. 민중적으로는 인간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재활 사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의하였다.

성경은 장애인을 비유적으로 천국만찬에 초대하고 있다. 맹인과 삭개오의 기록을 통해 묵시적으로 ‘보는 것’을 거듭 암시하고 있는데 맹인과 삭개오의 ‘보고 싶은 갈증’에 대하여 군중과 집단이 그들을 방해하였지만 예수는 그들을 천국만찬에 초청한다.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전인적으로 변화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애와 재활에 대한 성경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의료적 재활이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적 재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재활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경은 더불어 사회적으로 통합적이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사상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병든 자의 치유를 통한 은총의 회복 <마가복음 8:22>, 죄에 대한 심리사회적 회복 <요한복음 9:1-9>, 인간차별을 허무는 공동체 <야고보서 2:1>, 인간재활을 향한 통합 <누가복음 5:18>의 원리가 재활에 대하여 성경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성경은 장애에 대하여 육체적, 심리적, 영혼의 치유를 강조하고 있다. 한 뇌병변장애인을 친구 여럿이 들것에 실어와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리니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 죄 사함을 받고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기사는 장애인 재활을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누가복음서5:18-25>. 이 사건에서 재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중풍병자는 장애를 의미하고 들것에 실어는 주변자원이거나 친구, 서비스 제공자, 전도자를 의미하며, 기와를 벗기고는 선교자의 전문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달아내리’는 재활의 기술, 재활의 방법, 재활정보를 의미한다. 재활 전문가들은 성경적 의미로 제자양육의 교육자, 상담, 문제해결 자, 직분 자 같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교회가 장애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지 잘 제시되고 있다. 교회가 선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골고로 언덕을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 자유롭게 하고 완전하게 됨을 교육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장애인의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치유사건, 공동체의 차별과 분리를 공동체 속에서 하나 도어야 함을 성경은 일깨우고 있다.

둘째,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 장애의 심리적 해방감을 허락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적으로는 장애는 죄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성경에서도 장애는 죄의 대가로 기록되고 있으며, 금하거나 차별적인 윤법적 기록들이 존재한다.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다가 한 소경을 만난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는 짧막하게 대답하고 치유를 행한다. 장애에 대하여 제자들의 물음에 본인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님을 확고히 선포하고 있다. 장애는 하나님의 일로 세우는 일이다. 예수는 시가장애를 불러 치료하시고 그를 주체적 신앙인으로 바로 세운다. 오늘날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오자인 시가장애를 향해 보편적으로 ‘죄인’으로 인식해 왔던 사상을 새롭게 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선언하였다. 오늘날 장애인의 가족과 부모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올바른 성경의 해석으로 장애인가족들은 수치심과 죄의식에서 심리적 치료와 안식을 얻게 된다. 이는 심리적으로 사회적 면재부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장애인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심리는 장애가 부모의 잘못으로 죄의 대가로 그동안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리적 갈등을 잠재우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통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의 선물로 허락하고 있다. 이는 죄에 대한 본질로 장애의 경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장애의 심리적 재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경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통합사회에 대해 성경은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의 회복 사역에 집중하였다. 이 회복사역은 질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정의와 절서가 먼저 가 아닌 용서와 사랑, 치유, 수용과 비차별 정신을 통해 민중을 포용하는 있다. 오늘날 교회가 소외된 자의 차별과 장벽을 만드는 구별 된 장소가 아닌 이웃을 살려내는 회복의 장소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성경은 제시한다. 성경에서 장애에 대해 의미하고 있는 재활은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전인적 또는 총체적 재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성 교회에서는 구별하고 분리하는 특별선교가 아닌 장애인의 통합예배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예배실의 통합은 모든 교회의 지향점이며 실천 모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배통합을 실천하려면 통합예배에 대한 배려, 편의시설, 장애에 대한 호칭 사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총체적 재활은 생명존중, 평등의식, 차별금지, 인권회복으로서 장애인이 세상에서 인격적 존재로서 대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믿음 안에서 먼저 실천하여야 한다. 예배공동체는 장애인편의시설

을 점검하고 오래된 건축구조물이라면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예배당 진입 정도는 개조하여야 한다. 장애인도 통합예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대중 집회에서 보편적 언어로 장애호칭을 순화 사용하여야 한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건지 못하는 자, 불구, 앉은뱅이, 소경, 병어리, 손 마른자 등의 용어를 설교에서 사용한다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호칭들은 현대에서 장애차별로 인식된다. 호칭 사용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기에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장애용어 선정은 보다 조심스럽고 학습되어야 한다. 개역 성경에서 사용된 장애 용어는 문둥병자를 한센씨병, 중풍병자는 뇌병변장애, 앉은뱅이는 지체장애, 병어리는 청각장애, 소경은 시각장애로 장애용어 사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영우. 2012.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두란노』.

강영우. 1995. 다함께 예배를 장애인을 위한 신앙 지침서.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권선진. 2007.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고일영.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인권복지연구』. 7. 3 9~61.

김영신. 2006.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현황과 선교 연구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대학원.

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복지』.

김홍덕. 2010. 『장애신학』. 서울: 대장간.

나이토 토시히로, 박천만, 김영란 역 (1993). 구약 성경에서 본 장애자. 서울: 한국장애인진도협회.

남동우. 1944.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책임. 『월간고신』 4월호.

박해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제17권 제호, p97-126.

박해전·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3호, p136-172.

안교성. 2003.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흥성사.

윤상태. 2005.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계윤. 1996. 21세기 장애인 목회, 이렇게 제안한다. 『두란노』. p. 85.

이달엽. 2005. 사회소수집단에 속한 장애인의 역량강화. 『준커뮤니케이션즈』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정부자. 2003.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인근. 2001.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최경주. 2009. 장애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일반 아동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하태환. 2003. 장애학생 이해도 및 통합 학습 경험에 따른 일반 초등학생의 장애 수용도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남희. (2002).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Vash. C. L. 1981.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Wolfensberger Wolf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 :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http://www.kinds.or.kr/>

<http://chi.christianitydaily.co>

조영길 교수의 “재활과 관계된 성경 속의 담론”에 대한 논찬

이숙경 (ACTS 기독교교육학과)

연구자는 장애와 재활의 의미를 성경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 단순히 복지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 성경적 이해의 부재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위에서 재활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경에서는 장애를 가진 다양한 인물들의 재활을 부활과 치유, 복음전파와 연결 짓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애인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신구약 속의 장애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활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성경에서 장애를 어떻게 보고 다루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에 의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죄의 대가, 구별의 대상, 무능력자로 장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보호의 대상, 소망의 대상,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예수님에 의해 장애인들은 천국잔치에 초청된 손님으로 비유되고, 장애인은 천국잔치의 합당한 손님으로 언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장애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성경에서 장애를 다루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성경은 장애를 부정적 측면만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장애에 대한 관점은 죄의 대가, 부정적 이미지, 동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재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연구자는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는 성경연구에 앞서 재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활은 사회과학의 지식과 기술체계를 이용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심리적·사회적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본다. 현대적 의미의 총체적 재활은 장애인의 전생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이해를 지원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재활과정에 있어 욕구, 정서, 관심, 가치관, 태도 등 일련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활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이념에 입각하여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장애인이 속한 사회에서 주류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런 재활의 총체적인 측면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경의 분석을 통하여 성경적 재활의 성격을 의료재활, 심리 재활, 사회재활, 차별 금지 등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여기서 몇 가지 성경적 재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성경에서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복음증거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한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문화적으로 보편화해 왔고 구약성경도 그런 암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죄의식과 심리적 압박에서 문화와 시대를 뛰어 넘어 사회적 비난과 조소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예수는 열사당하고 무시당해왔던 사람들을 과거의 속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켰으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는 단지 육체의 재활이 아니라 심리적 재활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또한 예수 앞에 설 때에 장애인들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완전히 긍정되었으며, 따라서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서 그의 독특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다. 장애인과 병자에 대